

신안군, 제4기 1004굴 양식학교 입교식 '성황'

자연 노출식 양식으로 길러 강한 외부환경에 잘 적응 12월까지 입교생 24명 대상 생산·판매 등 전과정 지원

신안군은 지난 16일 신안군수를 비롯한 신안군의회 의장, 군의원, 관계기관장, 관계 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기 1004굴 양식학교 입교식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자연 노출식 양식으로 길러진 1004굴은 강한 외부환경에 잘 적응되어 유통기간이 길고, 맛과 풍미가 좋아 가격 경쟁력이 높고, 타 양식품종에 비해 노동강도가 적고 사료비, 인건비 등 어업경비 절감으로 순수소득을 또한, 높아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한 안정적인 양식산업으로 여성과 다문화 가정, 전업 농어업인, 귀어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1004굴 양식학교에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1004굴 양식학교는 입교생 24명을 대상으로 5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며, 1004굴의 생

산과 유통, 판매, 관광분야와 관련된 전 과정을 학습자 중심의 현장실무 교육과 전문가의 초청강사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계획으로 수료 후에는 양식시설 임대 및 보조사업, 양식어장 면허확보, 양식 기자재 지원 등을 아낌없이 지원할 것을 밝혔다.

신안수산연구소는 항시 개방하여 기존 수료생 뿐만 아니라 입교생과 일반인들에게 현장 체험의 참여기회를 통해 1004굴 양식기술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더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1004굴 양식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도입 시기인 2019~2021년까지 공공주도의 1004굴 시범양식을 완료하였으며, 2022~2027년까지 공공과 민간주도의 공동관리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3년간 국비 70억



을 확보하여 양식시설 규모화와 수료자 대상의 임대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2028년 이후부터는 민간주도형 1004굴 양식 산업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신안군수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신안 청정갯벌에서 생산된 1004굴을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아시아 최대 박람회인 '홍콩 FOOD

EXPO'에 첫 출시하여 세계인에게 신안 1004굴만이 갖고 있는 매력적인 특별함을 선사하는 등 수출 전문마이어를 확보하여 아시아권 수출을 통해 전 세계에 선보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신안=이덕주기자

함평군,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점검률 62%

내달 16일까지 재해취약 시설물 점검

함평군이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을 위한 '2023년 집중안전점검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함평군은 19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내달 16일까지 실시하는 집중안전점검에 대한 각 부서별 추진상황 보고회를 1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고회는 이병용 부군수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집중안전점검 시설물 소관 부서 팀장 등이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점검대상 시설물은 교량, 저수지, 하천, 캠핑 시설 등 민간시설물과 공공시설물 총 53개 시설물로서 11개 실과소가 관리하고 있다.

현재까지 53개 시설물 중 33개 시설물 점검을 완료하여 점검률은 전국 평균 21%를 훨씬 웃도는 62%를 기록했다. 나머지 20개 시설물은 전문가와 함께 안전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설물 점검에는 함평군 안전관리자문단, 유관기관 등 안전점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전문성을 높였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예산 소요 시에는 사업비를 확보하여 보완할 계획이다.

함평=김광춘기자



무안군 도로와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추진 현장점검

무안군은 2023년 도로와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지역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은 2022년부터 3개년에 걸쳐 무안군 관내 8개 읍·면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전체 길이 179.232km(도로: 91.291km, 상수: 87.941km)에 대한 도로와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지역은 일로읍·청계면 도시지역으로 기초 측량에 사용될 2급 기준점 2점, 4급 기준점 98점을 설치했다. 이 기준점은 지하 시설물 전산화를 위한 도로경계, 상수도 맨홀, 제수면, 소화전 등 위치를 정확히 확보하기 위한 측량기준점으로 설치 위치 적정성, 기준점 분포 여부를 점검했다.

무안=이기성기자

"운전자만 타고, 10~20분 휴식시간 가져요"

영암군, 5~6월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기간 설정하고 무사고 당부

영암군이 모내기, 농작물 파종 등의 적기인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민들에게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농기계 사용이 잦은 이달부터 다음달까지를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기간으로 정한 영암군은, 11개 읍·면에 관련 현수막을 게시하고 안전사고 예방 활동 강화에 나섰다.

행정안전부의 '2021년 재난연감 통계'에 따르면 전남지역 농기계 사고는 191건으로 이중 28%가 영농철인 5~6월에 집중되고 있다. 사고 유형으로는 끼임, 전복·전도, 교통

사고 등이다.

농기계는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어 사고가 발생하면 심한 부상을 입기 십상이다. 논과 밭, 비탈길 운행이 잦아 전복되는 경우, 농기계 밑에 깔릴 수 있어 깊은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운전자 탑승 전용 농기계는 동승자를 태워서는 안 되고,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이다. 아울러 영농작업을 할 경우, 서두르거나 무리하지 말고 꼭 10~20분 정도의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

영암=조대호기자



영광군, 농번기 농촌일손 돕기 본격 추진

영광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5. 1.~6. 19.까지 일손 돕기 중점기간으로 정하고 농촌일손 돕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농촌일손 돕기는 지난 16일 S-전략산업실 직원들의 범성면 신장리 배 농가의 열매숙기 작업을 시작으로 내달 19일까지 영광군청 450명의 공무원과 100여명의 유관기관 직원이 참여하여 일손이 취약한 농가와 과수, 채소 등 수작업이 필요한 농가를 찾아 진행될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일손부족으로 인한 농가

의 고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군청 직원들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농가들을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일손 돕기 중점기간 동안 농촌일손 돕기 알선장구를 설치해 일손지원 희망농가에 부족한 인력을 지원 중에 있으며 농촌일손 돕기를 희망하는 기관과 단체는 영광군청 농업유통과 친환경농업팀(☎350-5383) 또는 각 읍면 산업개발팀에 개설된 농촌일손 돕기 알선 창구로 연락하면 된다.

영광=서희권기자

목포시, 근대역사거리 문화공간 조성 '탄력'

손혜원, 목포시에 나전칠기 기증

목포시의 '근대역사의 거리' 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손혜원 전 국회의원의 측의 근현대 나전칠기와 부동산 기증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9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와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이사장 정건해), ㈜크로스포인트인터내셔널(고문 손혜원)은 지난 17일 목포에서 나전칠기 공예품과 부동산 기증식 및 협약을 가졌다.

협약은 기증받은 나전칠기 공예품 및 부동산을 통해 한국전통공예를 계승하고, 문화관광

활성화에 상호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증받은 공예품과 부동산에 대한 원활한 관리 이양, 나전칠기 공예품 활용을 위한 전문지식도 협력기로 약속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귀중한 소장품과 부동산을 목포시에 아무 조건없이 기증해 준 기증자의 뜻에 따라 소중한 목포시민의 재산으로 활용하겠다"면서 "예향 목포의 문화관광 활성화와 근대역사의 거리를 비롯한 원도심 활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아세요?
한수원이요즘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